

2023-2 언어데이터과학 기말프로젝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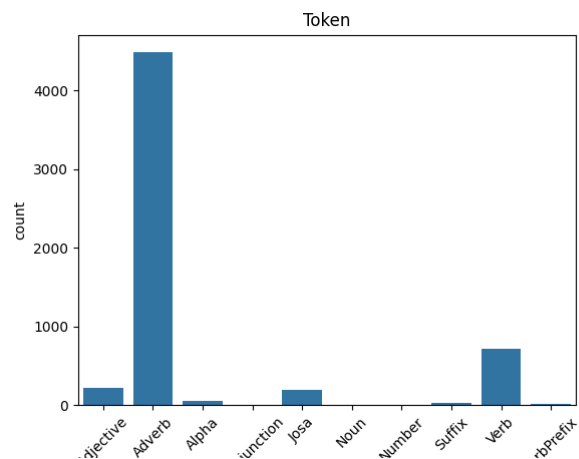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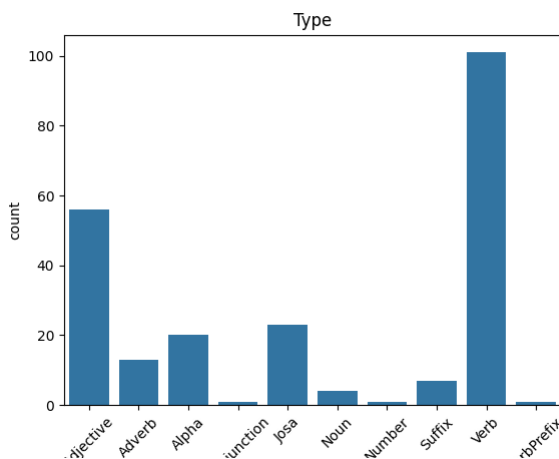
간접 복수 표지 '들'의 결합 조건 분석

2021-12659 박유나

Preprocessing

	sentences
0	어 운동에 대해서는 많이들 관심을 갖지 않는 거 같아
1	다들 유튜브에 있는 운동 영상 보면서 운동 많이 하더라고
2	요즘에 배달 음식 많이들 시켜 먹던데
3	그렇구나 보통 떡볶이보다 그 사이드메뉴가 더 맛있어 가지고 다들 사이드메뉴를 더 많...
4	처리하는 부분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다 보니까 많이들 시켜 먹는 거 같아
...	...
5635	그런 상황에서 종합편성채널은 일반 지상파 이상의 파괴력을 갖고 있다고 다들 보기 때...
5636	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다들, 생각들이 다들 많으실 것 같아
5637	그래서 각 개별법들에 있는 과태료 조항들을 지금 사실 다들 없애고 있습니다
5638	거기다 저희가 듣기로는, 연계된 DB들 있잖아요
5639	그거 그렇게 불명확한 거예요?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들
5640 rows × 1 columns	

모두의 말뭉치의 구어성을 지닌 코퍼스 [일상 대화 말뭉치 2020]과 [일상대화 말뭉치 2021] [국회 회의록 말뭉치2021] 에서 얻은 5514111개의 문장 중 '-들'이 간접 복수표지로 활용된 5640개의 문장을 추출함



부사의 경우 token은 높지만 type은 낮음. 특정 몇개의 단어만 '들'이 많이 결합한다. 동사에 붙을 수 있는 경우는 다양하다.

Checking condition

집단성

복수표지 복사(plural marking copying, Song 1975)라는 견해가 있었다. 즉 주어에 실현된 복수 표지가 문장 내의 다른 성분에 수의적으로 복사된다/(박소영, 2020) 간접 복수 표지 들에는 복수형의 주어가 전제되어 있다. 주어가 복수형이 아니더라도 문장 전반에서 집단성이 확인되어야 한다.(홍영애, 2021)

주어

	word	count
0	들/XSN	590
1	것/NNB	417
2	우리/NP	219
3	이것/NP	172
4	문제/NNG	75
5	생각/NNG	75
6	기/ETN	63
7	저/NP	60
8	저희/NP	60
9	님/XSN	51

```
df_JKS['count'][0] / sum(df_JKS['count']) * 100

13.294276701216765

(df_JKS['count'][0]+df_JKS['count'][2]+df_JKS['count'][7]) / sum(df_JKS['count']) * 100

19.580892293826047
```

간접복수표지 들이 나타난 문장중 주격조사 이/가와 결합하는 단어를 분석하였다. 약 13%가 주어에 복수표지 -들이 사용되었다. 한국어의 경우에는 복수성이 명시적으로 들어나지 않기에 집단적 명사를 추가한 경우에는 약 19.5%가 이에 해당하였다. 주어의 복수형이 들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. 주어 위치에 온 단어들의 type이 930임을 고려할 때, 3개 단어가 18.5%를 차지하는 것은 간접 복수 표지 사용에 -들이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.

들과 결합하는 단어

	word	okt_tag	count
0	다	Adverb	3945
1	많이	Adverb	426
2	한	Verb	274
3	본	Verb	94
4	흔히	Adjective	87
5	푸	Verb	59
6	한	Josa	51
7	그렇게	Adverb	49
8	에서	Josa	26
9	열심히	Adverb	24

```
plusdeul['count'][0] / sum(plusdeul['count']) * 100

68.88423258250393

(plusdeul['count'][0] + plusdeul['count'][1]) / sum(plusdeul['count']) * 100

76.32268203247774
```

문장 전반에서 집단성이 확인된다면, 들이 결합하는 단어에서도 집단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. 00들 꼴의 단어중 다들이 68%였으며, '다들'과 '많이들'이 76%를 차지하였다. '다'와 '많이'모두 집단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.

다들

```
model.wv.most_similar(['다들'])
```

✓ 0.1s

```
[('많이들', 0.7172414660453796),
 ('모두들', 0.6949450969696045),
 ('계시더라고요.', 0.6867292523384094),
 ('시대라고', 0.6835435032844543),
 ('교수님도', 0.6825608611106873),
 ('교수님들도', 0.6750579476356506),
 ('많으셔서', 0.6732888221740723),
 ('그분도', 0.6703954339027405),
 ('어르신들이', 0.6677936315536499),
 ('어머님도', 0.6653468608856201)]
```

다들이 부사구가 아니라 청자 전체를 지칭하는 명사가 되었다...? 하지만... 조사 결합이 불가능... 하지만 주어들과 유사성을 지님 ...?

배분성

이러한 간접 복수 표지 '-들'의 다양한 의미적 역할과 기능 중에서 문장의 의미 해석에 중점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배분적 속성이었다. 즉, 간접 복수 표지 '-들'은 그것이 결합한 성분이 나타내는 사물, 행위, 방법, 관련사건 등이 문장 내 주어가 표지하는 행위자들에게 배분되는 역할을 한다. 이를 통해 복수적 주어가 나타내는 행위자의 집단적 행위가 개체화, 개별화를 겪으면서 문장에 배분적 의미가 부여 된다 (박소영, 2020).

```
len(deuldis)/ len(utterances_deul2) *100
```

✓ 0.0s

2.8014184397163118

간접 복수표지 들이 배분성을 지닌 부사 '각자, 각각, 마다, 씩, 끼리'와 사용되는 경우는 2.8%에 불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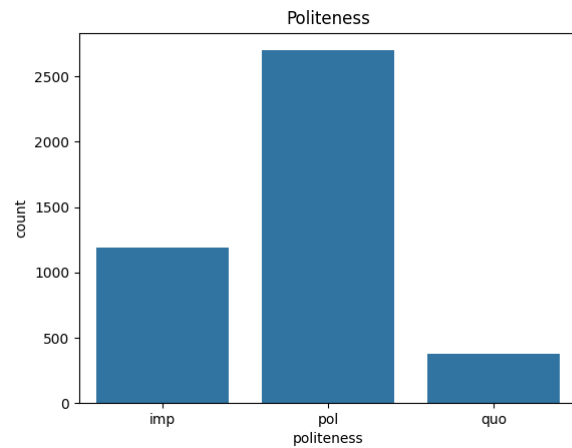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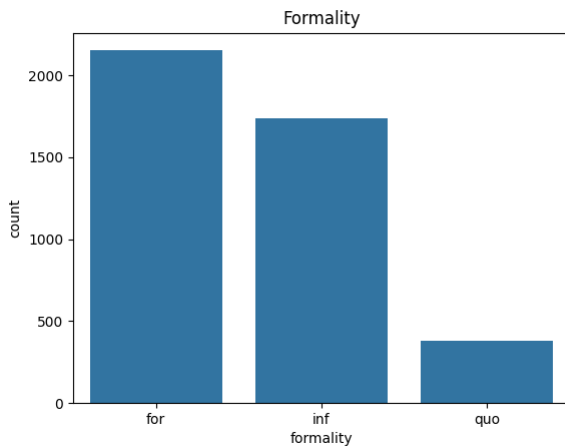
종결 표현

복수표현이 화용적인 의미를 담당하는 것은 많은 언어에서 발견되며, 특히 공손성을 표현하는데 많이 활용된다. 한국어에서도 복수표현 '-들, -네, 따위' 등이 비복수적 의미나 화용적 의미를 나타낸다. 그렇지만 이들은 복수성과 공손성의 관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. (정상희 2016)은 복수표현들의 결합에 있어, 문법성과 비문법성을 결정짓는 것은 공손성이라기 보다는 격식성이라고 설명한다.

- 분석 방법:

종결표현에 실현되는 상대높임법에 따라 격식성과 공손성을 확인한다. (하십시오 / 하오 : 격식성+ 공손성+, 하게 / 해 : 격식성+ 공손성-, 해요 : 격식성- 공손성+, 해 격식성- 공손성-) 격식성+ for 격식성- inf / 공손성+ pol 공손성- imp 특징이 분명한 하십시오체와 해요체를 제외하고는 수작업으로 분류..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하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 존재

- 결과:



격식성에서 [격식성+]와 [격식성-]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공손성에서 [공손성+]와 [공손성-]는 큰 차이를 보인다. ‘-들’이 나타내는 화용적 의미는 [격식성-]보다 [공손성+]인듯 하다.

```
len(index_sun) / len(utterances_deul2.index)
# 간접 복수 표지 -들 중 20%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-시와 결합
```

✓ 0.0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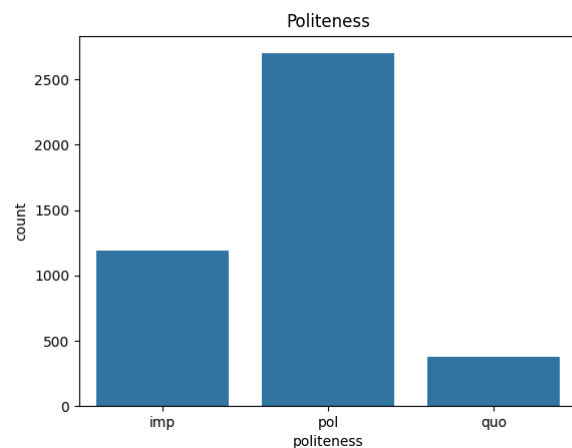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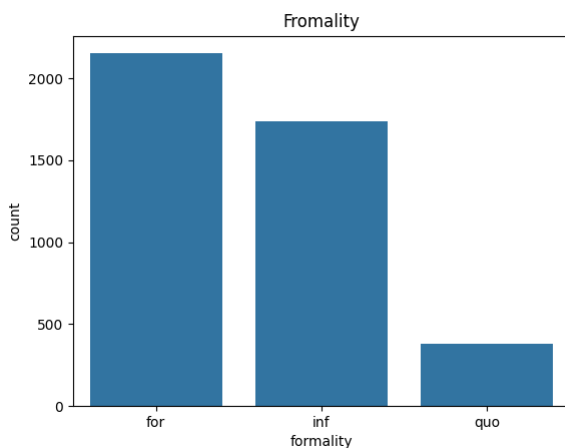
0.20815602836879432

‘-들’이

나타난 문장 중 약 20%에서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‘-시’가 나타난다. 이 역시 공손성과 관련있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.

집단성 배제

들은 주어에 집단성이 없는 경우에도 나타난다. 이경우엔 화용적의미가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까? 다들, 많이들과 결합한 경우와 들이 suffix로 나타난 경우를 제외하고 공손성과 격식성을 비교하였다.



차이가 없다.

References

- 홍영예. (2021). 우리말의 복수 표지 '-들'에 관한 소고. 어학연구, 57(3), 225-243.
- 박소영. (2020). 간접복수 '들'의 실현: 음성형식부 일치 현상. 언어학, 88, 91-113.
- 정상희. (2016). 복수 표현의 복수성과 화용적 의미. 한국어 의미학, 52, 31-59.